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대전시민연대 301-825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1층 전화 042-331-0092 전송 042-252-6976
신행정수도사수범충남연대 301-825 대전시 중구 선화동 348-5 전화 042-255-9008 전송 042-255-9401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360-012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146 전화 043-225-6644 전송 042-256-9113

수신 : 대전·충남·충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제목 : 3개시도 대표자회의 순연 보도자료
발신 : 2004. 12. 2 (화) (총2쪽)
문의 : 범대전시민연대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016-403-8176)
범대전시민연대 김수현국장(042-331-0092, 011-9068-3323)

보도자료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결성을 위한 3개시도 대표자회의 순연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한 범충청권 단일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대전시민연대, 신행정수도사수범충남연대,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의 대표자 회의가 당초 12월 3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순연되었습니다.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3개 시도의 단일조직의 결성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인한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적 추진을 위한 단결을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충북도민연대의 조직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일정을 순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도의 신행정수도 관련 단일 조직들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거론되는 충청권 대책론-선국회합의론-백지검토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 강력 대응

할 방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정오에 출발하는 연기대책위의 경운기 상경투쟁, 12월 4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될 연기 공주지역 신행정수도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서울 상경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충북조직 개편의 완료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져 순연될 뿐이며 범충청권이 단결하여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굳건함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추후 대표자회의의 개최 일정은 충북의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12월 14일로 예정된 충청권 정치인 합동 워크샵 이전에 개최할 것입니다.

2004. 12. 1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대전시민연대
신행정수도사수범충남연대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